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천수관음상', 미국의 프리어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탱화' '청동유물', 일본의 재일교포 수장가 김형익씨가 공개한 '동제각문경' 등을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Q채널 특별기획 4부작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PD 박정우)가 24일부터 12월15일까지 매주 월요일 밤 10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1부 프랑스편-'파리에서 찾은 또 하나의 역사'(24일)에서는 기메박물

佛 소장 '천수관음상' 고국 시청자에 미소

Q채널 '잃어버린…' 방영

美탱화 日고불서도 소개

관 수장고에 보관된 대구 동광사에서 수집되었다는 기록만 남아있는 '천수관음상'과 '아미타삼존도'를 카메라에 담았다. 기메박물관 수장고가 한국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부 미국편-'뉴욕에서 거래된 국보'(12월1일)에서는 고종황제의 총애를 받던 주치의 알렌 컬렉션과 경기도 경상도 일대에서 발굴했다는 청동유물을 공개한다.

3부 일본편-'사라진 동궁전'(12월8일)에서는 데라우찌 문고 수장고 등을 한국TV 최초로 공개, 그곳에 보관된 조선 총독부 사진 기록 동국통감 퇴계선집 등과 석탑 등을 선보인다. 4부 '해외문화재 오늘의 의미'(15일)에서는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총망라해 문화재 되찾기 방법 등을 모색한다.

영상다큐 "불교문화는 민족의 고향"

'한국의 불교문화' 만든다

불교TV 기획제작팀 촬영착수

불탑·불상·건축물등 총24편 새해 1월 범종·석등 방영

우리 사찰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한국의 명찰', 우리 시대 큰스님들의 생애와 법어를 들려주는 '뜰앞의 잣나무' 등 불교TV의 대표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제작팀이 본격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일대 변신을 꾀했다.

영상사업부에서 출발 PD 1명과 카메라맨 2명으로 운영돼온 기획제작팀은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PD 7명으로 인력과 역할을 대대적으로 보완했다. 당초 사찰이나 종단 홍보물 제작을 맡아 왔으나 '한국의 명찰' '뜰앞의 잣나무' 등을 제작하던 제작1팀과 합쳐 종합 다큐멘터리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기획제작팀은 최세영 팀장을 중심으로 영상사업부에서부터 팀을 지켜온 이범관 PD, '한국의 명찰' 김양·노진규 PD, '뜰앞의 잣나무' 윤정현·강영호 PD, 뉴스팀의 김충현PD 등이 합세해 영상불교의 새장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기획제작팀은 요즘 '한국의 불교문화'(가제) 기획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문화'는 98년 1월6일 마지막 방송이 나갈 '한국의 명찰' 후속편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획물로 총24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가운데 '석등'과 '범종' 편은 신년특집으로 꾸며져 98년 1월1일과 2일에 각각 안방으로 찾아간다. 특히 '범종'은 에밀레종을 추적해온 KBS에서도 분석작업이 끝나는 12월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으로 보여 신년에 우선 공개하기로 한 것. 불교와 관련된 불탑류 석불 불상 호법신중 불전건축 불화 불구 작법 전적 범종 불교상징물 등을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현대적 시각으로 분석, 불자들의 이해를 돕게될 이 프로그램은 98년 3월 경부터 99년 12월까지 2년여간 방영하며 비디오도 제작 출시할 계획이다.

최세영 팀장은 "'한국의 불교문화'는 지난 3년간 '한국의 명찰'을 만들던 노하우와 자료를 십분 활용해 각각의 주제를 심층촬영하고 탐구할 수 있는 분석적인 접근방법을 택해 불자들이 좀 더 쉽게 우리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제작팀은 '한국의 명찰' 후속으로 '한국의 불교문화'를 준비하고 있다.

감지연 기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76)

♦ He who praises him who is to be blamed, or blames him who is to be praised, gathers up sin in his mouth, and through that he will not find any joy.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하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 The trifling is the sin that consists in losing riches by dice; this is a greater sin that corrupts the mind against sugatas.

도박으로 재산을 잃은 죄는 오히려 사소한 불행이다. 그러나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은 죄는 아주 무겁다.

♦ He who speaks falsely goes to hell, or he who having done something says, "I have not done it both these after death become equal in another world they are both men guilty of a mean deed.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 했으면서 안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같은 지옥에 떨어진다.

♦ Thou spreadest pollution to the misfortune of others, thou revilest the just, committing sin yourself and having done many evil deeds thou wilt go to the pool of hell for a long time.

남을 해칠 마음 없이 게 끗하고 더럽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악이 돌아온다. 바람을 거슬러서 먼지를 날리는 것처럼.

♦ For one's deeds are not lost, they will surely come back to you, their master will meet with them, the fool who commits sin will feel the pain in himself in the other world.

그 어떤 업(業)도 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와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내세에서 그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blame (v) 비난하다, 나무라다
*trifling (a) 하찮은, 시시한
*dice (n) 도박, 주사위 놀이
*sugata (pali)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 행복한 사람
*deed (n) 업(業), 행위
*the other world 내세

주부신행담

부처님의 미소 ②

3천배 마친 환희심에 이젠 매일 새벽기도 백만배 회향하면…

내 심 나 혼자만 해 내지 못하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응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부처님을 쳐다보니 빙그레 웃으신다. 그래 걱정 붙들어 매자.

어제보다 더 힘들다. 엉치도 아프고 다리는 로봇처럼 움직임이 둔하다. 삐그덕 쿵, 삐그덕 쿵. 땀방울이 바닥을 흥건히 적실 정도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더니, 내 몸에 물이 이렇게도 많았던가.

'오늘도 무사히' 작심삼일을 몸소 실천해온지라 이렇게라도 다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먼저 부처님께 간절한 3배를 올린다.

"부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천배를 마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신다. 그 웃음에 안길 양으로 다시 오체를 던진다. 어제보다 더 힘들다. 시작부터 엉치가 당기고 다리는 숫제 따로 놀려 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라더니 영락없이 그 짝이다.

'삐그덕 쿵, 삐그덕 쿵' 얼굴 들어 부처님 마주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렇게 해서라도 부처님 곁으로 다가갈 수만 있다면 보고 보는 수밖에.

이틀째의 천배를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첫번째 염주를 돌리고 나서 가장 먼저 떠 올리는 한 생각.

"정말 우리 몸에 물이 이렇게도 많았던가!"

3일째, 회향하는 날이다.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께 올릴 떡 한 시루와 과일을 준비했다.

"2천배 무사히 끝내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3배와 함께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 마지막 천배를 시작했다.

오늘은 몸, 마음이 모두 가볍다. 천배 정도는 날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환희심' 바로 이런 마음자리를 이르는 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일배 일배마다 사무치도록 다가온다. 기쁜 마음으로 3천배를 마치고 좌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출현하시는 3천 부처님의 은덕으로 큰 기쁨 얻을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저희들은 새로운 불자로 거듭납니다. 부처님 제자다운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 법당을 청소하고 나오니 발걸음은 새털마냥 가볍다.

그렇게 시작된 절은 토요일마다 이어졌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확인하는 순간 '그래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과연 할 수 있을까, 괜한 약속으로 스스로 심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고민은 며칠이고 이어졌다.

"한번 부딪쳐 보자. 부처님께서도 왕의 영화를 버리시지 않았던가."

이런 결심의 순간, 친구 한명이 내 뜻에 선뜻 동의하니 며칠의 고민이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우리는 하루에 5백배로 목표를 줄이는 대신 매일 독경을 더 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새벽 예불 시간에 법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니 밤새 잠이 오지 않는다. 기쁨 반, 걱정 반. 천배에서 오백배로 줄이니 그리 부담스럽진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적응이 되지 않아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깜짝 놀라 일어나면 새벽 2시, 3시. 여름엔 그리도 견딜만 한데 코끝이 시린 겨울이면 그 또한 고통이었다. 평소 남보다 잠이 많은 나는 시계를 몸의 일부로 삼아 품에 안고 자는 수 밖에 없었다.

그림 · 이준석

그렇게 잠과 싸우다 한관을 나설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부처님 곁으로 가는 기쁨을 확인하려는듯 회향의 날을 '백만배'로 잡아 놓았다.

새벽녘 절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그 순간들은 언제나 난생 처음인 것 같다. 옛 여인의 눈썹같은 그믐달, 졸리운 듯 깜박이는 별빛, 상큼한 공기…. 이 모든 대자연의 응원 속에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기쁨이란. 이제껏 이 광계저 광계로 십 수년의 세월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았던 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 없다.

배석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2리〉

큰기술 PCS 016세상-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사용요금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가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품질 통화품질이 다르다
전파는 방해없이 바로바로 전달되어야 깨끗합니다. 국내최초로 PCS 업체중 시스템기술센터의 품질검증을 거치고, CDMA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룩한 PCS 016-33%가 한국통신의 교환기로 직접 연결되기에 통화품질이 타 이동전화회사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등의 훼손을 방지할 뿐만 통화중 끊김현상, 혼신잡음 등이 거의 없습니다.

2배 채널용량이 다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현재에 급급하여 마구잡이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습니다.온 국민 누구라도 넉넉하게 이동전화를 쓸 수 있도록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한 기지국 하나하나 마다 수용 채널수가 타 이동전화회사의 2배이기에, 통화량이 폭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넉넉하게 PCS016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국통화가 보인다
이땅의 곳곳을 누비며 축적된 등고선 자료, 전국의 도로지도, 인구통계, 건물자료 등 한국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PCS 016 -전국 어디서나 깨끗한 감도로 통합니다.

97년 10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0%)	
수도권	서울 전지역 인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송탄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하남 가평 김포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포천 장호원 진위 진접 이천 광탄 포천 동두천 대부도
강원권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 춘천 횡성 인제 간성 도계 영구 영월 정선 정선 홍천 화천 횡성
충청권	대전 제천 청주 충주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증평 진천 괴산 보은 부여 서산 아산 예산 천안 당진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대전 부곡 성고개 서천 성거 연기 장고 대전광 청천 옥구 장항 전의 청원 연기천 청원 아천 충주 평창
전라권	광주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전주 정읍 목구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장흥 순천 장흥 강진 나주 목포 무안 무주 아천 전주 김천 김제 곡성 곡성 구례 남원 남원 남원 무주 무안 보성 장흥 장흥 진도 장성 장흥 전주 여수 해남 화순 화순 노화도 보길도 나로도
경상권	부산 대구 경산 경주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포항 울진 울릉 의성 김포 간곡 고령 구룡포 군위금호 봉화 산산 상주 안곡 왕릉 영덕 영양 예천 우천 울진 오동 울진 의성 정도 정조 정동 울기 의성 봉화 거제 김해 하산 장림 사천 영산 울산 전주 전북 정동 통영 거창 고성 남지 노동 동소 문산 산천 영산 영산 전남 용암 김포 양산 전동 장산 해남 통영 영진 통영 기야
제주도	서귀포 제주 구좌 남원 대정 성읍 신창 애월 조천 한림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광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97년 11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6%)	
수도권	안도
강원권	양양 가진 동산 원주
충청권	공릉 주덕 상동
전남권	신이면 진동 월고 삼동 도천도 사도 일도 안좌도 임동도 장재도
경남권	충산 내리 해동 동동도 울릉도

97년 11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7%)	
수도권	용인시 처인도 안계도
강원권	일원 주천도
충청권	고산 대곡 북면
전남권	임동 장수 전라 진산 나만 일로 지도 원동 북산도 월도 유도도
경남권	기곡 진교 이곡 월평동 대동 산동 진산 상동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6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양지국 0344-912-2323